◎ The Korean Periodical Index and It's some notes, during past 10 years.

定刊物索引事業과 얽힌 지난 10年間의 雜記

——「醫學·藥學論文總目錄」(1945～'72)을 發行하고서——

成 宅 慶
(國會圖書館 書誌塔當官)

1. 序

現在 人類가 이룩한 知識의 總量은 그야말로 天文學的인 量이다. 더욱 科學文明이 發達함에 따라 知識量의 增加는 加速的이며 幾何級數的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J.W. Senders[1]는 人間의 知識·蓄積量을 圖書館에 收書되는 藏書量으로서 數字로 表示한바 있다. 그것을 잠깐 살펴보면 書架上에 꽂친 書架의 길이로 表示해서 大體로 2.2×10^{15}피—드로 推算하고 年間 增加量은 6.2×10^{12}피—드로 推算하고 있다.

또 Wernher Von Braun[2]氏는 人間의 知識量測定을 人類가 洞窟生活에서부터 A.D. 1750年까지 이룩한 量을 1이라 假定하고 이것이 1900年까지 2가 되었으며 1950年에는 4가 되었고 1960年에 8이 되었으며 1968年에는 16으로 늘어 난다고 推算을 하고 있다.

筆者가 本稿의 緖頭에서 人間의 知識量에 對해 긴 說明을 하는 理由는 이렇게 暴發的으로 불어나는 知識量 即 情報의 洪水時代를 맞이하여 書誌事業의 重要性이 날로 高調되어 가며, 특히 定期刊行物의 Index 事業이 그 意義가 더욱 더 重要함을 說明하기 위함이다.

다시 定期刊行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現在 世界에는 科學·技術部門의 逐次刊行物만도 약 35,000 Title에 年間 약 900,000편의 論文이 發表되고 있다 한다[3].

이렇듯 知識情報의 洪水속에서 硏究調査에 從事하는 1個人이 自己가 參考코자 하는 文獻, 또 參考해야 할 지식 情報에 다 接해 보기가 不可能한 일이란 누구나 다 周知하는 일이며, 그래서 전자계산기까지 動員하게 된것이다.

J.Martyn[4]의 調査에 의하면 現在 이루어지고 있는 硏究活動이 약 20% 乃至 $\frac{1}{3}$～$\frac{1}{4}$가량이 故意가 아니게 偶然히도 重複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硏究의 重複은 國家的으로나 또 個人的으로나 아무런 所得이 없는 徒勞에 時間과 經費를 虛費하는 것이 되고 만다.

索引事業은 知識情報를 迅速히 提供해서 硏究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硏究活動의 重複을 防止하여 헛된 徒勞를 막는다는데도 큰 意義가 있다.

2. 定期刊行物索引事業이 着手되기까지

우리 나라의 "定期刊行物記事索引" 事業은 1963年에 韓國圖書館協會 技術委員會 定刊索引分委에서 "學術雜誌索引" 〈1960年度分〉을 編輯發刊한것이 그 처음이다. 이 "學術雜誌索引"이 誕生되기 以前까지의 경과는 위의 "學術雜誌索引" 〈1960年度〉의 序文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우리 圖書館界의 重鎭이신 金重漢, 故 南暎祐, 李鍾文, 李春熙, 任鍾淳 諸氏가 모여 計劃하여 一部 原稿까지 作成한바 있으나 出版할 財政的 뒷받침이 없어 作業이 계속되지 못하고 中斷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때 韓國圖書館協會도 4·19, 5·16을 거치는 동안 그 運營상태가 거이 癱卑되고 있었다. 前 協會 事務局長 李鍾文氏와 筆者가 協會 일을 보게 된것이 바로 이때 即 1962年 3月부터이다.

協會 일을 着手한지 2·3個月만인 1962年 5·6月項으로 記憶되는데 1963年度 國庫補助事業으로서 韓國十進分類法(K.D.C.) 韓國目錄規則(K.C.R.) 圖書館用語集 등과 더불어 이 定期刊行物記事索引事業을 포함한 千餘數萬원의 豫算案을 作成하였다.

아무런 經驗도 없이 그 原稿가 얼마나 될지 作業分量의 가늠도 못하면서 어림計算으로서 千餘萬원의 豫算案을 만드는데 낮에는 事務局의 雜務에 쫓겨 전혀 손댈 겨를이 없고 退勤時間以後에야 겨우 무교동의 지금 서린호텔(그때 二流旅館정도로 기억됨)의 구석방을

(註 1) John. W. Senders: Information storage requirements for the contents of the world's libraries, Science 3585. p. 1067—8.
(註 2) Wernher Von Braun: "Libraries and Space Age" ALA Bulletion Vol. 56, No. 6 p. 525, 1962. 6.
(註 3) 服部一敏：情報選擇配布(SDI) サービス. びぶろす Vol. 23 No. 9 p. 15, 1972
(註 4) J. Martyn: Unintentional duplication of research. New Scientist Vol. 21, No. 377 1964.

하나 차지하여 3日間의 밤새움끝에 國庫補助 申請豫算案을 作成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 豫算案을 文敎部의 當務者外 經濟企劃院의 당무자들에게 이러한 圖書館의 基本的인 Tool이 꼭 必要하다는 것을 說得하기 위해서 外國의 分類法 索引등 各種 見本册字 數十册를 큰 가방에 넣어 들고 中央廳의 當務者들을 찾아 다니면서 가방을 풀어 헤치고 약을 팔던 생각이 어제의 일 같은데 어언 10年前 일이다.

이와같은 努力의 보람이 있어 1963年度 國庫補助金 3百萬원을 받게되어 各種事業을 着手케 되었다.

3. 學術雜誌索引의 發行과 販賣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國庫補助 3百만원을 받아들고 그야말로 韓國圖書館界의 總智를 다 모아 效率的인 執行이 되어야 하겠는데 그 人選을 위해서는 協會의 事業인지라 協會의 定款부터 고쳐서 組織을 構成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雜多한 일들이 많았었으나 일사불란하게 技術委員會 各種分科委員會를 構成하여 分科委員會別로 여러 가지 事業을 1963年 年初부터 着手하게 되었다.

索引分科委員會는 李春熙氏를 分委長으로 하여 任鍾淳 故 南暎祐氏가 맡아서 實務者 圖書館學科出身 具本英, 石賢證, 嚴惠媛양외 4·5名을 더 彩用하여 原稿作成을 始作하였다.

그러나 協會에는 우리나라 全體 定期刊行物이 없기 때문에 不得已 職員하나를 내 세워 市內 各級 圖書館을 訪問하여 자료를 貸出하여다가 索引을 하고 貸出이 不可能한곳은 全職員이 그곳으로 出張하여 原稿를 作成하였다.

이러한 作業過程을 거쳐 드디어 1960年度分 索引이 1963年 6月에, 그리고 1961~2年度分 2個年 索引은 1964年 6月에 發行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움을 무릅쓰고 만들어진 册이지만 그때만 하여도 이와같은 書誌情報자료에 대한 認識이 不足하였음인지 아무리 販賣에 努力을 傾注하여도 千部 發行한것이 그 $\frac{1}{5}$인 200부밖에 팔리지 않아서 協會의 財政이 낭패에 부닥쳤다.

○販賣에 얽힌 寸劇

上記册의 販賣에 腐心하다가 學術硏究機關으로 市場을 開拓해야 하겠는데 一般圖書의 行商人으로서는 아무래도 不足한 感이 있고 學問과 또 硏究에 대해서 이 索引의 効用度를 說得할수 있는 能力을 가진 사람이라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筆者가 作成한 圖書行商人의 募集 廣告文은 폐기되고 圖書行商人 募集廣告가 "大學의 講師 또는 大學院生초빙, 하루 2·3時間 努力으로 月收 4·5萬원"이란 內容의 廣告文을 私書函表示로 新聞에 揭載하였다.

그랬더니 不過 4,5日만에 3千餘通의 履歷書가 모여지는데 마치 큰 사기罪나 지은듯 가슴이 두근거리며 마음이 不安하여졌다. 그리하여 一次로 3百餘名(?)의 應募者에게 通知하여 一黨에 모이게 하였는데 막상 모이는날이 되니 筆者가 作成한 廣告文을 지워버리고 알숭달숭한 前記廣告文을 作成 揭載하였던 장본인은 좀 겁이 났던지 出勤도 하지 않고 不得不筆者가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떨리는 다리를 겨우 억제하면서 3百餘名이 모인 앞에 나아가서 처음부터 일의 內容을 바로 說明할 수 없어 學術雜誌索引의 重要性부터 說明하기 始作하였다.

一黨에 모였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무슨 內容의 일인지 몰라서 의아한 눈빛으로 열심이 경청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차차 "이册의 普及에 여러분들의 高見과 努力을 바란다"는 말을 듣고 자기들의 할일이 圖書行商人임을 알았을때는 얼굴색이 푸르락 붉으락 하드니 그래도 全員이 점잖게 아무말 없이 일어서 나가버리고 단 두사람만이 남았다.

그사람들에게는 仔細한 內容을 說明하였드니 그사람들도 다 돌아가버리고 結果的으로 新聞廣告費만 損害보고 만 셈이다.

4. 定期刊行物記事索引事業의 現況

前述한데로 協會에서 갖가지 方法으로 이 索引을 販賣코자 애를 썼으나 별로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이를 販賣하여 그 代金을 回收하지 않고는 이 事業을 持續해 나갈수 없는 어려움에 부닥쳐 있을때 國會圖書館의 現 姜周鎭 館長께서 이 事業의 重要性을 切感하시고 相當量의 册을 消費하여 주시고 이 事業의 持續을 위해 筆者를 포함한 實務者 3名을 1964年 11月 中旬頃에 國會圖書館으로 옮겨서 일하게 하여주셨다.

그후 國會圖書館에서 1963年度分 定期刊行物의 記事索引부터 "國內刊行物記事索引"이란 書名으로 發行케 되었는데 1965年부터는 그 時點에서 向後의 것은 季刊으로 그때 그때 발행하여 學術硏究에 迅速한 情報提供을 하게 하고 遡及分은 年刊 또는 數年刊의 누적本으로 發行하였는데 1972年末 現在의 發行現況은 다음과 같다.

書名	收錄期間	面數	發行年月	裝幀
國內刊行物記事索引	1963年度分	274面	1965. 8.	양장 4.6倍版
	1964年度分	352面	1966. 6.	〃 〃

〃	1965年 1月～ 3月分	94面	1965. 10.	半양장 4.6倍版
〃	1965年 4月～ 6月分	100面	1966. 3.	〃 〃
〃	1965年 7月～12月分	256面	1966. 11.	〃 〃
〃	1966年 1月～ 3月分	91面	1966. 12.	〃 〃
〃	1966年 4月～ 6月分	98面	1966. 12.	〃 〃
〃	1966年 7月～ 9月分	99面	1967. 5.	〃 〃
〃	1966年10月～12月分	154面	1967. 6.	〃 〃
〃	1967年 1月～ 3月分	88面	1967. 6.	〃 〃
〃	1967年 4月～ 6月分	87面	1967. 10.	〃 〃
〃	1967年 7月～ 9月分	80面	1967. 12.	〃 〃
〃	1967年10月～12月分	149面	1968. 5.	〃 〃
〃	1968年 1月～ 3月分	93面	1968. 7.	〃 〃
〃	1968年 4月～ 6月分	107面	1968. 10.	〃 〃
〃	1968年 7月～ 9月分	111面	1968. 12.	〃 〃
〃	1968年10月～12月分	148面	1969. 4.	〃 〃
「정기간행물기사색인」	1969年 1月～ 3月分	103面	1969. 7.	〃 〃
	1969年 4月～ 6月分	103面	1969. 12.	〃 〃
〃	1969年 7月～ 9月分	109面	1970. 4.	〃 〃
〃	1969年10月～12月分	178面	1970. 7.	〃 〃
〃	1970年 1月～ 3月分	106面	1970. 8.	〃 〃
〃	1970年 4月～ 6月分	104面	1970. 11.	〃 〃
〃	1970年 7月～ 9月分	101面	1970. 12.	〃 〃
〃	1970年10月～12月分	158面	1971. 5.	〃 〃
〃	1971年 1月～ 3月分	102面	1971. 7.	〃 〃
〃	1971年 4月～ 6月分	112面	1971. 9.	〃 〃
〃	1971年 7月～ 9月分	130面	1971. 12.	〃 〃
〃	1971年10月～12月分	212面	1972. 4.	〃 〃
〃	1972年 1月～ 3月分	137面	1972. 6.	〃 〃
〃	1972年 4月～ 6月分 <1967年補遺篇>	255面	1972. 10.	〃 〃
〃	1972年 7月～ 9月分 <1968年 補遺篇>	200面	1972. 12.	〃 〃
「國內刊行物記事索引」	1945年～1957年末	559面	1969. 12.	〃 〃
	1958年～1959洋末	228面	1967. 12.	〃 〃

이상 34册과 協會에서 발행한 1960～'62年 까지의 "學術雜誌索引" 2책을 合해서 모두 36책으로서 1945年 8月부터 1972年 9月까지의 定期逐次刊行物의 記事索引은 다 된 셈이다. 勿論 解放直後 및 6·25直後의 定刊物이 相當量 누락 되었을 것으로 믿는다.

5. "醫學·藥學論文索引의 累積本

지난해 年末에 "醫學·藥學論文總目錄"이란 書名으로 1945年 以後 1971年末에 이르는 27個年分의 論文·記事와 또 解放以後 우리나라 各級大學에서 授與한 醫學·藥學博士學位論文을 附錄으로 收錄한 洋裝 4·6倍版 8p活字 750面에 達한 尨大한 册字를 刊行하였다.

이책은 前記 國會圖書館에서 이미 刊行한 定期刊行物의 綜合索引誌에서 醫學·藥學部門만을 따로 떼어 27年分을 累積한 索引集이다.

現在 정기간행물기사색은 모든學問을 다 包括하는 綜合索引誌로써 全學問을 13個(Ⅰ. 政治·行政, Ⅱ. 法律, Ⅲ. 經濟, Ⅳ. 產業·農水產, Ⅴ. 社會·勞動, Ⅵ. 敎育, Ⅶ. 文化·藝術, Ⅷ. 文學·語學, Ⅸ. 哲學·宗敎 Ⅹ. 歷史·地理, Ⅺ. 純粹科學, ·. 醫學·藥學, Ⅻ. 工學·技術學)主類로 나누어서 前章에서 記述한 바와 같이 1965年 以前分은 年刊, 또는 數年刊으로 그리고 1965年 以後부터는 1年에 4回 季刊으로 發行하여 全36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권의 책으로 나누어져 있기때문에 어떤 情報나 어떤자료를 찾는 學者, 調査硏究者에게는 많은 不便을 주고 있다.

이러한 不便을 처음부터 모르는바 아니지만 그러나 새로운 知識情報를 迅速히 提供해야 하는面에서는 오히려 現在의 季刊도 너무 늦어서 月刊으로 刊行하기를 要望하고 있다.

故로 이索引은 그때 그때 迅速한 情報提供을 위해 發行한것을 나중에 累積해야 함은 當然한 歸結이며 近來에 와서는 이러한 累積索引의 必要性이 各學問分野에 걸쳐 더욱 要請되고 있다.

그래서 累積 索引을 刊行한다면 全學問에 亘한 綜合索引誌을 刊行하고 있는 當國會圖書館에서 綜合累積索引을 發行해야만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해방후 27年間에 亘한 綜合累積索引을 한꺼번에 刊行하기란 너무도 벅차고 尨大한 業務量과 經費가 所要됨으로 不可能하며 不得已 前記한 13個主題에서 學問部門別로 나누어서 누적索引을 刊行하는 것이 현명한 方法이 될것이다.

그래서 13個 主類가운데서 學藥·醫學을 제일먼저 累積索引의 對象으로 定하여 지난 年末에 刊行한것이 前記"醫學·藥學論文總目錄"이다.

本國會圖書館에서 醫學·藥學部門을 13個 主類가운데서 제일먼저 누적색인 대상으로 定한것을 多少 의아스럽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27年間의 索引을 다 모아 놓고 한번 훑어 본다면 그 이유를 是認할줄 믿는다.

"醫學·藥學論文總目錄"의 序文에서도 밝혔듯이 우리나라의 醫學敎育이 1886年 美國人 알렌博士에 의해 設立된 王立病院인 濟衆院에서 부터 始作한 以來 近 1世紀 동안 그래도 끊임없이 꾸준히 硏究發展되어서 오늘날의 우리 醫學水準은 世界의 先進國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 아무런 손색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解放後 1972年까지 27年사이에 우리나라의 사정 가운데 6·25란 우리민족에게는 가장 어려움이 極에 達했던 時代이며 學問活動에 있어서도 거이 停止狀態였음은 누구나 是認할것이다.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醫學部門만은 軍陣醫學에서 꾸준히 硏究發展되어 왔던 것이다. 그래서 해방후 오

늘에 이르기까지 定期逐次刊行物에 揭載된 論文記事의 量的인 面에서도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質的인 面에서도 다른 學問分野와는 그 學術的 比重이 比較가 안될만큼 優秀한 論文들이 發表되어 왔다.

國會圖書館이 우리나라의 定期·逐次刊行物의 綜合索引誌를 刊行하는것 부터가 한갓 國會의 附屬圖書館의 성격을 벗어나서 立法府外 行政·司法府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學術硏究機關에 奉仕하는 國立圖書館의 性格을 가졌을진대 學術的 硏究 活動에 가장 緊急한 學問分野, 所用될 學問部門을 제일 먼저 累積索引의 대상으로 定해야 할것이 마땅한 所致일 줄 믿는다.

앞으로도 이러한 各學問部門別 累積索引을 계속 發刊할 計劃으로 作業을 推進中에 있으며 今年 1973年에는 "政治行政"部門의 累積索引을 發刊할 計劃으로 作業中에 있다.

6. "醫學·藥學論文總目錄"의 未備點

27年이란 긴 期間에 亘한 약 3萬여편의 尨大한 자료의 索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未備點이 있다.

同册字의 原稿作成에서부터 編輯發行을 直接 맡아온 사람으로서 未備點에 대한 不得已한 事情을 늘어놓음으로서 多少나마 罪를 免할까 한다.

첫째로 各項目의 記述方法의 統一을 期하지 못한 點은 編輯한 사람으로서도 가장 가슴 아파 하지 않을 수 없는 事項이다.

各論文의 筆者名, 論題까지의 記述方法은 모두가 다 統一되어 있지만 雜誌名, 月號, 卷號, 年號, 面數, 連載表示等의 記述方法에 있어서는 年度에 따라 조금식 달리 記述되어 있다.

이것은 그동안 年間(1960, 1963, 1964年分) 半年刊(1965年 7月~12月分) 2年刊(1958~59年分) 13年刊(1945~157年分) 季刊(1965年 以後分)등 여러 가지 刊種으로 이미 發刊하여 온 記述方法이 各各 다른 綜合索引誌에서 "醫學·藥學"部門을 가위로 오려 만든 原稿이기 때문에 所載原雜誌 現物을 다시 찾아 보지 않고는 고치지 못하는 不得已한 일이 었다.

두번째로 卷末의 "收錄雜誌名 一覽"에서 各雜誌의 收錄卷號를 다 記入하지 못한 點이다. 이것도 亦是 原索引誌가 收錄卷號를 記入하지 않고 있기때문에 三萬餘篇의 論文을 하나 하나 點檢하여 만들어야 하는 벅찬 業務量을 時間에쫓겨 만들 수 없었던 일이다.

셋째 한 筆者가 同一小主題 內에서 여러篇의 論文을 發表하였을 때 그 論題의 배열에 있어 대체로 가나다順으로 하였으나 그 배열이 엄격히 지켜지지 못한 點이다.

한 筆者가 同一小主題內에서 쓴 論文이 일이십篇 以內일 때는 檢索에 있어서 別不便이 없겠으나 그以上이 될때는 多少 不便도 있을줄 믿는다.

그 배열이 엄격히 지켜지지 못한 이유도 한 筆者가 쓴 同一小主題內의 論文은 3"×5" 카—드에 붙칠 수 있을 만큼 가위로 오려 붙친 原稿이기 때문에 이 作業着手時에 한 筆者의 每篇의 論文마다 카—드 한장씩으로 만들지 않은 편집作業上의 잘못이었다. 그外 校正문제, 누락잡지 完全補充 등등 몇가지를 들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未備點은 不得已하였던 일, 索引으로서 지켜야 할 原則上의 不備點이지 어떤 論文을 檢索하는데 어느잡지 몇號에 揭載되었다는 인포메이션을 提供하는데는 別支障이나 實際使用하는데는 不便이 없을줄 믿는다.

한가지 附記하여 둘것은 醫學·藥學部門의 門外漢으로서 同論文·記事를 分類하는데 있어서 主로 "外科醫師"가 쓴 論文은 外科에 "內科醫師"가 쓴 論文은 內科에 分類하는 形式을 取했고 그 主題가 뚜렷한것만 別途로 取扱하였다는 點이다. 그래서 分類에 相當한 오류가 있지 않을까 두렵다.

그리고 累積索引에는 綜合索引誌인 "정기간행물기사색인"에 누락 되었던 많은 量의 雜誌의 論文記事가 補充되였다는 點을 밝혀 둔다.

이상 여러가지 미비점은 아무쪼록 玉의 티 정도의 애교로 보아 주시는 寬容을 바랍니다.

7. 餘 感

前記 서린호텔에서 定期刊行物記事索引을 위한 도서관협회의 豫算에 관한 일부터는 今年 12年, 實際 그것의 作成 編輯業務를 着手한지는 11年, 색인을 위해 살아온 것이 筆者의 圖書館 生活이 었다.

한가지 業務에 10餘年을 지내오니 이제 지루하기도 하고 業務에 대한 염증이 없을 수도 없다.

그러나 또한편 생각하여 보면 圖書館 業務가운데는 가장 보람과 의의를 느낄 수 있는 業務라고 생각된다.

특히 이번에 「醫學·藥學論文 總目錄」을 發行하여 醫學者들의 기쁜 환영과 讚辭를 받고 보니 더욱 지난 10年間의 내 生活이 헛되지 않고 보람이 있었다고 느껴지지 않을수 없다.

無力하고 活氣없는(自己 스스로는 그렇게 느끼고 있음) 圖書館職員 4,5名의 힘으로 全國의 많은 醫師·醫學을 專攻하는 高價한 (敎育費가 많이 投資된) 頭腦의 努力을 많이 節減해 줄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내 生活에 보람을 느끼지 않을수 없다.

全國의 많은 醫學을 硏究하는 사람들이 이미 發表된 旣存論文을 이 "醫學·藥學論文總目錄"을 通해서 有效하게 利用하게 되고 또 硏究의 重複을 避할수가 있어서 個人的으로나 國家的으로 學問發展에 도움이 될것을 생각하면 지난 10年間의 내 生活에 보람과 긍지를 느끼지 않을수 없다.

그래서 印刷所에서 갖 만들어 온 책을 받아 들고 기뻐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事務室로 찾어 온 大學에서 敎鞭을 잡고 있는 親舊가 있기에 자랑을 늘어놨드니 이 친구 책을 받아 들고 그 內容, 앞뒤 序文, 版權紙 등 무엇을 찾는듯 열심히 뒤져 보드니 하는 말이 이책이 자네말과 같이 참으로 有用하고 많은 努力이 든 책 같기는 하다만 그런데 자네가 만들었다는 表示가 어디 있느냐고 反問을 한다.

그런 反問을 받고 그제야 筆者도 생각이 나서 책을 도로 받아서 앞·뒤 序文등을 다 뒤져 보았으나 原稿가 다 만들어지고 그 지루한 編輯業務가 끝나 印刷에 依賴하여 即 印刷過程中 校正 한번 그것도 五校正中 단 한번의 校正을 본 醫學專攻의 外部人事의 이름은 나타 나는데 지난 11年間 내 人生 30代의 生活을 이 색인을 위해 다 발쳐 온 自然人 筆者에 대한 흔적은 아무곳에서도 찾어 볼수가 없다.

그리고 學者들의 뒷바라지만 했지 나 自然人 스스로에게 돌아온 所得은 무엇이있나 하고 反問하여 보니 虛無와 더불어 末職의 서러움만 북받쳐 오른다.

筆者도 三級甲 書記官이라면 그렇게 末職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解放直後의 雜誌索引原稿를 만들기 위해 個人 所藏雜誌를 찾어 다니면서 남의 집 뒷골방 구석에서 밥상하나를 빌려 웅크리고 앉아서 원고를 作成하던 일, 남의 圖書館閱覽室에 가서 學生들과 뒤섞여 앉아서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終日토록 잡지를 골어 내다가 베끼던 일, 밤중까지 印刷所에서 校正 보느라고 애쓰던 일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의 꼬리는 꼬리를 물고 떠 오른다.

바로 이것이 圖書館人의 宿命이고 職分이라고도 다시금 되새겨 본다.

다른 사람의 硏究를 위해 뒷바라지 하는 奉仕 一邊倒의 職業임을!

그래서 自己에게는 아무런 成果가 없어도 남의 硏究를 위해 많은 奉仕를 잘 했다고 自己生活에 대해 보람을 찾고 喜悅을 느끼기만 해야 하는 職業이라고……

또 한편으로 뒤바꾸어 생각하면 外形上의 뚜렷한 어떤 實績, 눈에 띄이는 努力의 功績등에 뒤따르는 榮光과 讚辭등 기쁨은 크고 화려하지만 一過後에는 오히려 虛脫이 뒤따르겠지! 그러나 화려한 榮光과 讚辭없는 圖書館人의 內面生活의 보람, 희열은 오래지속되며 그것이야 말로 眞實된 幸福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여 본다.

모든 圖書館人들이여!

오로지 남의 눈에 띄이지 않는 그늘에서 묵묵히 일하고 奉仕하여 自己의 內面生活에서 보람을 찾고 기쁨을 찾으며 幸福한 人生을 누리도록 努力하자!

(27面에서 繼續)

의하여 모든 文獻調査를 함으로 지리하고 時間이 많이 걸리게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索引誌가 豫備調整原則(post coordinate principles)을 活用하지 않기 때문에 高度의 精度가 요구되는 文獻調査에는 충분한 豫備調整이 合理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副標題가 添附되어서 豫備調整이 된 主題(Index Medicus), 수식된 語句에 의하여 補完된 索引用語(Chemical Abstracts 형태의 索引), 혹은 정확한 引用순서에 따라 정확하게 균형이 잡힌 主題(British Technology Index)에 의하여 豫備調整原則은 이루어져야 한다. 索引은 索引의 형태에 따라 標題 자신이 文獻의 구체적 내용을 나타내는 役割도 하기 때문에 非文獻資料에 의하여 標題에 要求되는 特殊性을 부분적으로 결정된다. 매우 특수한 標題(British Technology Index)를 사용한 索引은 비교적 넓은 標題를 갖는 索引 보다는 抄錄을 붙일 필요성이 적다. 만일 標題가 넓은 의미를 內包하고 있다면, 非文獻資料는 구체적 內容을 表示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몇개의 索引이 文獻抄錄이 있는 곳에 內容을 밝히도록 되어 있으므로 文獻에 관한 割當된 索引用語가 모두 記錄되었다 하여도 抄錄이 없다면 利用者는 文獻의 適合性을 결정할 때 文獻題目의 內容에 거의 依存하게 된다.

參考文獻

8. Wiederkehr, R.R.V., A Net Benefit Model for Evaluating Elementary Document Retrieval Systems, in Westat Research, Inc., Evaluation of Document Retrieval Systems: Literature Perspective, Measurement, Technical Papers, Westat Research, Inc., Bethesda, 1968(PB 182 710)
9. Bryant, E.C., D.W. King, and P J. Terragno, Some Technical Notes on Codng errors, Westat Research Analysts, Inc., Denver, 1963(WR A PO 7)
10. King, D.W., Evaluation of Coordinate Index Systems During File Development, Journal of Chemical Documentation, 5 (No. 2): 96—99 (1965)
11. King, D.W., Comments on the Meaning aud Interpretation of Consistency Measures for Evaluating Indexing Processes, Memorandum to US Patent Office, Westat Research Inc.. Bethesda, 1967.